

## 제주지역의 사회적 자본 연구

진관훈\*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제3의 자본'이라 불리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상징성을 통해 제주사회를 분석하고 나아가 제주사회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용어는 Judson Hanifan에 의하여 1916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민주주의와 개발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이웃다움(neighborliness)과 시민참여의 종말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가족의 고립과 지역사회 정체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행하였다. 즉,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로 표본 추출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도구로는 사회적 자본의 4변수인 신뢰 6개 항목,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8개 항목, 네트워크 8개 항목, 사회구조 8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적 자본 간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로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규범, 사회구조,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중요도

---

\* 제주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출신지, 거주지에 따라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는 평균 차이가 없으나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축적과 기부문화의 확산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지며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기부문화 확산에 사회적 노력과 정책적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 출신지, 기부경험에 따라 네트워크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주지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시 거주응답자가 서귀포시 응답자의 네트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양 지역의 개발 불균형, 삶의 질 격차에서 기인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넷째 연령, 학력에 따라 네트워크의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학력능력 향상과 도민일자리 특히 실버세대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시급히 도모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지역구성원과 지방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후진적인 법질서 의식, 폐쇄적 연구주의나 배타적 집단주의 등이 반드시 선결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사회적 자본, 신뢰,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 구조**

## I. 서론

프랑스 사회학자 Pierre Bourdieu에 의하면, 자본은 기능하는 장(field)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변형되기 위해 다소간의 비용을 치른 후에 경제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가장된 채 자신을 드러낸다고 한다. 즉,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돈으로 변환되며 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 경제자본,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경제자본으로 변화되며 교육적 자질의 형태로 제도화 되어 있는 문화적 자본,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경제자본으로 변환되며 사회적 의무(연결)로 구성되어 있고 고상함을 나타내는 신분의 호칭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는 사회적 자본이 그것이다(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7: 65).

이에서 연유한 ‘자본’의 세 가지 형태 즉, 경제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념이 정교화되고 구체화되면서 2000년대에는 경제자본에 대한 제 3의 자본으로 제시되는 등 사회과학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3의 자본’이라 불리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상징성을 통해 제주사회를 분석하고 나아가 제주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 순기능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역사적·지형학적 여건으로 인해 마을과 권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가 발달하였고 이에 기반한 수눌음 전통이 강하며 또한 마을마다 마을제, 용왕제 등 각종 마을 축제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신뢰와 참여’ 같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는 물론 마을 축제, 문화유적 등과 같은 사

회·문화적 자본의 역량과 기반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방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 개발과 성장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난개발, 지역격차 등의 문제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급감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 민관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에 대한 이탈감이나 무관심이 증대하고 그 결과 '제주사회 공동체'는 점점 더 그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간의 연대의식이 희박해 지며 상호부조 등의 전통적인 사회 통합 요소도 급격히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제주사회가 역사·문화·사회구조 측면에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역량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 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 호혜성에 근거한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를 전제하고 이들 4가지 사회적 자본 변수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사실을 근거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하에서 출발한다. 첫째, 응답자 개인별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논문은 제1장에서 이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구문제를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 이 논문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의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구조화된 설문도구를 가지고 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제5장 결론에서는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안을 개진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1990년대 이후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자본의 용어와 개념은 다양해 이를 단적으로 개념화하기 어렵다.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의 목적이나 관심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측면과 요소들을 강조해왔다.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이라는 용어는 Judson Hanifan에 의하여 1916년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는 민주주의와 개발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주목했다. 또한 이웃다움(neighborliness)과 시민참여의 종말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가족의 고립과 지역사회 정체기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Putnam, 2000: 17-18).

사회적 자본 개념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1960년대 초 미국의 경제학자인 Johnson, Schultz, Becker 등이 인적 자본<sup>1)</sup> 개념을 도입

---

1)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할 때는 물적인 자본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물적자본 못지않게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인적자본이라는 용어를 낳았다. 인적자본의 종류를 그 형성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본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본은 예컨대 지능, 천부적 재능 등 능력과 자질을 말하며 그 분포는 빈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일정한 것으로 가

하였고 이와 비슷한 시기 Bourdieu(1996)가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데서 기인한다(Field, 2003: 12-13). Bourdieu(1996)에 의하면, 자본은 기능하는 장(field)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변형되기 위해 다소간의 비용을 치른 후에 경제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가장된 채 자신을 드러낸다고 한다. 즉,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돈으로 변환되며 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 경제자본,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경제자본으로 변화되며 교육적 자질의 형태로 제도화 되어 있는 문화적 자본<sup>2)</sup>,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경제자본으로 변환되며 사회적 의무(연결)로 구성되어 있고 고상함을 나타내는 신분의 호칭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는 사회적 자본이 그것이다(Field, 2003: 14-15).

<표 1>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적 자본과 각각 비교하여 이론적 의의는 무엇이고 자본의 소유자는 어떻게 구분되며, 자본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게 다르며, 그와

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습득된 자본은 교육·보건·현장훈련·정보 등에 의한 후천적으로 양성된 능력과 자질을 말하는데 이러한 인적자본의 습득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인적자본에의 투자'(investment in human capital)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인적자본에의 투자효과는 개인의 장래에서 소득과 효용의 증진이라는 사적 이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제고되면 작업동료와 고용주의 생산성도 높아지는 등 생산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소속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 2) 문화적 자본이란 상징적 표현이 화폐나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하여 결정된 교환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Bourdieu(1996)에 의하면, 문화적 자본은 경제적 부를 결정하는 화폐자본보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한 사회의 문화적 표상과 수준을 결정한다. 또한 문화적 자본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 혹은 집단적 장과 그렇지 못한 주체, 혹은 집단적 장 사이의 문화적 구별짓기를 시도한다. 아울러 문화적 자본은 언어 능력, 문화예술의 정보와 지식 습득능력, 문화적 취향의 형성과 문화적 능력으로 인한 자본의 취득으로 인한 계급의 불평등 관계를 유지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

같이 서로 다른 자본의 존재형태는 무엇이며 분석의 수준이나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표이다.

<표 1>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 경제자본                      | 인적자본                           | 문화적 자본                    | 사회적 자본                  |
|---------------|---------------------------|--------------------------------|---------------------------|-------------------------|
| 이론적 의의        |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 자본가에 의한 배타적 소유만 인정되던 자본의 개념 수정 | 경제자본과 문화적 자본 불일치          |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본 |
| 자본 소유자        | 개인(자본가)                   | 개인(노동자)                        | 가족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 집단 (사회집단)               |
| 자본 소유자가 갖는 이익 |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 노동시장에서 협상력 증대, 높은 임금           |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 결속의 창출  |
| 자본의 존재형태      | 물질적 수단 (생산수단)             | 교육과훈련을 통해 개별노동자에게 체화된 기술, 지식   |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취향       |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 |
| 분석단위          | 구조(계급)                    | 개인                             | 가족                        | 개인 또는 집단                |
| 연구의 초점        |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 착취관계     | 교육과정과 임금수준의 연관성 등              | 문화적 자본을 통한 세대간 계급 재생산     | 개인 혹은 집단사이의 관계유형        |

자료 : 유석춘 외(2007: 65).

Bourdieu(1996)는 경제적 자본이라는 물질적인 형태가 문화자본 또는 사회적 자본 등의 비물질적인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의

역도 성립한다는 것을 강조한다(Svendsen & Svendsen 2004: 16-18), 즉, 자본의 다양한 형태가 서로 전환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역시 일종의 자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자본이 즉시 현금으로 전환되고 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듯이 문화적 자본은 특정 조건 하에서 경제자본으로 전환되고 교육적 자격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고, 사회적 자본도 특정한 조건하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되며, 고결한 문화자산의 형태로 제도화되기도 한다.

Bourdieu(1996)의 사회적 자본 연구의 핵심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서로 익히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제도화된 네트워크에 연계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 네트워크의 소유정도와 관련지어진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결합체로, 여기에서 지속적 네트워크는 상호 친밀성 내지 인식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제도화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 네트워크와 집단 소속이 각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한다. 한 집단이나 국가가 가진 사회적 자본의 총량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그 사회적 네트워크에 속한 각 개인들이 가진 잠재적 기회 자원의 양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은 그 자체가 목적도 되지만 사용기간 외에도 오랫동안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이어서, 필요한 순간만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얻기 위해 사교에 장기적인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계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Svendsen & Svendsen 2004: 17-19).

Bourdieu에 이어 사회적 자본이론과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 Putnam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신뢰, 규범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McLean, Schultz & Steger, 2002: 128).

그는 사회적 자본을 일련의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 수평적 단체 내의 관계라고 본다. 이 개념에는 두 가지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즉, 자발적 시민참여와 네트워크와 규범이 경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그것들이 중요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가치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Putnam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보다 넓게 제시한 Coleman은 사회적 자본 연구에 있어 '사회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두 요소 내의 다양한 실체이며 "사회구조의 일련의 측면을 구성"하며 "구조 내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 한다"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 안에서 개인이나 기업, 그 누가 행위자 이진 간에 행위자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자본은 합리적 행동 패러다임 내에 있는 사회구조를 설명하고 있다(Field, 2003: 20-23).<sup>3)</sup>

사회적 자본 연구에 있어 '신뢰'를 강조하는 연구로는 Knack, Keefer, Fukuyama(1995) 등을 들 수 있다(박찬웅, 2006: 6). Knack와

---

3) Coleman은 Putnam이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수직적, 권위적, 배타적 사회네트워크까지 사회적 자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Keefe는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한 측면인 신뢰가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그는 신뢰와 시민협동은 ① 공식적 제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재산 및 계약권을 가지고 있고, ② 소득이 높고 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③ 계급과 교육, 인종적으로 분파성이 미약한 국가에서 더 강력하다고 하면서 사회적 자본과 제도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신뢰'를 강조한 Fukuyama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비공식적인 가치나 규범으로 집단 또는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해 구성원의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성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신뢰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Fukuyama, 1995: 49).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점차 제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North는 사회적 자본(비공식제도)은 정부, 정권, 법의 지배, 법원 체제 등과 같은 공식적 제도를 변화시키고, 사람들 간의 복잡한 교환에 있어 협동적인 해결을 위한 친밀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North는 Olson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거시경제의 결과를 동시에 연구하였다. 그들은 국가에 따라 국민일당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생산자원의 분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것은 공공정책을 포함한 제도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한 국가가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이 투자, 전문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를 포함한 제도로 설명한다

(Svendsen et al., 2004: 73-74).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고 다른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것은 협력적 관계망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다른 자본의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적 관계망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신뢰와 호혜성을 기반으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개입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포괄하고 있는 관점은 규범이 발달할 수 있고 사회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정권, 법의 지배, 사법 체계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관계<sup>4)</sup>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과 같은 공식화·제도화된 관계와 구조 역시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자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획득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획득 및 축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로 통해 이어진다.

##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 
- 4) 법에 의한 지배와 훌륭한 사법체계는 공정한 계약을 강요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Grootaert & Bastelare, 2002: 48). 이를 테면 지대추구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 확립과 공정한 사법체계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공식적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공식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 제도를 보완해줄 비공식제도인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무형적이고 추상적인만큼 그동안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우선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Putnam(2000)은 ‘지역사회 또는 조직생활’<sup>5)</sup>, ‘공공참여’<sup>6)</sup>, ‘지역사회 자원봉사’, ‘비공식적 사회성’<sup>7)</sup>, ‘사회신뢰’ 등을 측정변수로 들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신뢰’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하는 구성원 비율, 대부분 사람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구성원 비율을 측정요소로 들고 있다(Putnam, 2000: 217).

Narayan도 ‘신뢰’를 중요한 사회적 자본 요소로 들고 있으며 이외에 ‘일반화된 규범’, ‘집단성격’<sup>8)</sup>, ‘협력’<sup>9)</sup>, ‘일상생활 사회성’, ‘이웃과의 관계’ 등 6가지 항목을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로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신뢰’는 가족신뢰, 이웃 신뢰, 다른 인종/계층 신뢰, 사업가 신뢰, 정부공무원 신뢰, 판사/법원/경찰신뢰, 정부 서비스 제공자 신뢰, 지방정부 신뢰 등 8가지 항목을 측정요소로 들고 있다(박세경

- 5) ‘지역사회 또는 조직생활’의 측정요소로 전년도 지역조직의 위원회에서 일반 구성원 비율, 전년도 집단 또는 조직 간부로 일한 구성원 비율, 인구 1,000명당 시민사회 단체수, 전년도 단체 회의 참여 평균 구성원수, 사회단체에 가입한 평균 참여자수 등을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6) ‘공공참여’의 측정요소로 대통령 선거 투표참가율, 전년도 학교 및 지역사회 행사 참여율 등 2가지 항목을,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측정요소로 인구 1,000명당 비영리 조직의 숫자, 전년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 일한 평균 봉사자수, 전년도 자원봉사참여 평균 봉사자수 등 3가지 항목을 삼고 있다.
- 7) ‘비공식적 사회성’의 측정요소로는 친구방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구성원 비율, 전년 집에 초대한 평균 손님수로 삼고 있다.
- 8) ‘집단성격’의 측정요소로 구성원수, 자금기부, 참여빈도, 의사결정 참여, 구성원의 다양성, 단체 자금 출처 등 6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일반화된 규범’의 측정요소로는 도움과 공정성을 들고 있다.
- 9) ‘협력’은 함께 잘 지내기, ‘일상생활 사회성’에는 일상생활 사회성을 들고 있다. ‘이웃과의 관계’는 아픈 자녀를 돌보아주기를 이웃에 요청, 아플 때 이웃에 도움 요청, 자원봉사 경험 유무, 자원봉사 기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웃에 대한 공정한 대우, 사람에 대한 도움 경험 유무 등 7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외, 2008: 62 재인용).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공식적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Stone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측정요소로 가정(핵가족), 넓은 의미의 가족(대가족), 친구, 지인, 이웃을 들고 있다. ‘공식적 네트워크’로 집단과 관계없는 시민사회 관계 즉, 선행, 개인적 지역사회관계 또는 정치관계에 기초한 집단, 출생 관계, 아동보호, 교육, 스포츠, 여가, 음악, 예술, 교회, 자선단체, 자원봉사, 자조 등과 업무에 기초한 네트워크 즉, 단체, 제도, 국가 등 10가지 항목을 측정요소로 제시하고 있다(홍영란, 2005: 69).

사회적 자본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6개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6개의 차원은 집단과 네트워크, 신뢰와 단결성, 집단적 활동과 협력, 정보와 의사전달, 사회적 응집성과 포용력, 권한과 정치활동 등이다(최영출, 2006: 105).

이러한 지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단과 네트워크’는 가입하고 있는 지역사회내의 집단 수, 가입하고 있는 집단들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집단, 가입하고 있는 집단들의 구성원들이 종교, 성, 인종 등의 면에서 동질적인지 여부, 가입하고 있는 집단들의 구성원들의 직업, 교육배경에서의 동질성 여부 등을 항목으로 삼았다.

‘신뢰와 단결성’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사회 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지 여부, 지방공무원 및 중앙공무원에 대한 신뢰 여부, 지역사회내의 사업이 직접적으로 귀하에게 이득이 되지 않지만 지역사회 내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경우에 이 사업을 위해 시간이나 자금 면에서 기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 4가지

항목을 측정요소 하고 있다(Grootaert, 2002: 45-40; 박세경 외 2008: 71).

사회적 자본의 정의를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사회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으로 정의하는 W. Rohe는 그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시민 관여(civic engagement), 개인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및 효과적인 집단활동(effective collective action)의 개념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최영출, 2006: 105).

이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다양성, 네트워크 위치, 유대관계의 친밀성,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목적 등 5가지 항목을 측정요소로 하고 있으며 '신뢰'는 다른 주민들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신뢰,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 등 4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있다(최영출, 2006: 106).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기존 연구와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측정도구로 여겨지는 Putnam의 사회적 자본지수(Putnam, 2000)와 Esser의 사회적 자본구조도를 바탕으로 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사회적 자본 측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구조'를 비중 있게 측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을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신뢰는 조직의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결속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규범은 구성원 간 책임의식을 증진하여 사회협력의 수준을 높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이익을 도모하고자 국가의 법률이나 조직의 규칙 등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단체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구성원 간 소통과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어 사회화합이 증진된다. 사회구조는 이질적이고 인간관계가 수직적인 사회구조일수록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고 기존의 네트워크가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기 어렵다. 즉,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갈등요인이 심할수록 사회협력 수준이 저하된다고 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8).

<표 2>을 통해 이 연구에서의 측정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뢰는 일반적 신뢰도, 공정성, 금융시장 신뢰, 공공기관 신뢰도, 사회기관 신뢰도, 정부소유권 보호 등 6개 항목을 들고 있으며 사회규범은 시민의식, 부패, 법의 지배, 법의 기원 등 4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는 종교, 교육·예술·문화, 스포츠·여가, 노조, 정치정당, 전문협회 가입비중 등을 측정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구조는 소득불균형, 민주주의, 정부역량, 사회갈등지수, 이민자 비중, 도시인구비중, 비공식적 교제, TV 보급률, 정치권 권력 등으로 가장 많은 10개 항목을 측정항목으로 삼고 있다.

<표 2> 사회적 자본 지수의 구성항목과 내용

| 분야   | 항목   | 내용  |
|------|--|---|
| 신뢰   | 일반적 신뢰도  | 대부분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                            |
|      | 공정성  | 남들이 자신을 이용하지 않고 공정히 대함                              |
|      | 금융시장 신뢰  | GDP 대비 민간부문 국내여신                                    |
|      | 공공기관 신뢰도   | 정부, 국회, 경찰, 사법제도, 군대, 행정사무, 정당에 대한 신뢰도              |
|      | 사회기관 신뢰도   | 종교, 언론, 노조, 방송, 기업에 대한 신뢰도                          |
|      | 정부소유권 보호   | 법적구조, 소유권: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소유권보호정도 포함                    |
| 사회규범 | 시민의식   | 정보보조금 부정수급, 공공교통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 등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 |
|      | 부패   | 공무원과 정치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
|      | 법의 지배  | 법과 질서를 잘 지켜지는 정도(계약집행 수준, 경찰, 법원의 질 등)              |
|      | 법의 기원  | 영국보통법=0, 시민법=1, 사회주의법=2                             |
| 네트워크 | (1) 종교, (2) 교육·예술·문화 (3) 스포츠·여가 (4) 노조 (5) 정치정당 (6) 전문협회에 가입한 비중 |   |
| 사회구조 | 소득불균형  | 지니계수  |
|      | 민주주의   | 민주주의 성숙도  |
|      | 정부역량   | 정부의 정책수행능력  |
|      | 사회갈등지수   | (소득불균형+민족다양성)÷(민주주의 지수+정부역량)                        |
|      | 이민자 비중   |   |
|      | 도시인구비중   |   |
|      | 비공식적 교제  | 친구, 직장동료, 종교친우, 스포츠클럽 회원과 한달에 한두번 이상 교제             |
|      | TV 보급률   | TV를 소유한 가정의 비중                                      |
|      | 인터넷 보급률  |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
|      | 정치적 권리   | 선거, 출마 등 정치적 절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도                   |
| 종교   | 인구 중 카톨릭과 이슬람교도 비중   |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9: 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강조점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도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인지적 사회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과 '구조적 사회자본(structural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Uphoff는 인지적 범주의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협동하게 만드는 문화와 이데올로기 혹은 규범이나 가치 및 태도 그리고 신념에 의해서 강화되는 정신적인 과정과 연관된 것이라면 구조적 범주의 사회적 자본이 연결망을 포함한 사회조직의 형태와 연관된 것이라고 보았다(구혜정, 2003: 37).

인지적 사회적 자본은 공유된 가치, 신념, 태도, 신뢰, 규범 등 주관적이고 관찰이나 접촉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는 반면 구조적인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나 사회구조와 같이 객관적이고 외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그 내용들은 사교의 층위에 따라 개인의 가치, 신뢰의 측면인 미시적인 측면에서부터 국가의 법이나 사회구조, 거버넌스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의 스펙트럼으로 구분한다(한상미, 2007: 18). 이러한 인지적 및 구조적 자본은 규범과 신념을 협동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이상도, 2009: 23).

그리고 인지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차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인지적 측면에서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그리고 구조적 측면에서 네트워크와 사회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 1) 인지적 측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의 개념과 직접 연결되면서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유용성은 물론이고 사회·정치적 유용성을 밝히는 이론적·경험적 연구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나 감각을 지니지 못하고 자기 본위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는 개인을 변화시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여 공공선에 대한 감각을 지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결속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힘을 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신뢰와 호혜성은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측면에서 핵심적이며 사회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통합의 힘이다.

#### (1) 신뢰(trust)

신뢰는 타인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 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로 배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Field, 2003: 25). 이 신뢰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서로 협동, 감시, 통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안정, 사회적 결속,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신뢰관계는 혈연, 지연, 학연 및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공동체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부 사람들 간에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 혹은 사회 일각에서 신뢰가 충만하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능력이며 가치체계, 특히 사회적 신뢰를 주로 반영하고 있다(Fukuyama, 1995: 26). 신뢰는 다음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한상미, 2007: 26). 초기에는 신뢰를

어길 경우의 불이익이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초과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타산적 신뢰(calculus based trust) 단계이다. 두 번째는 상호교류가 증가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상대방을 믿게 되는 지식의 신뢰(knowledge based trust)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목표, 규범, 가치 등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며 서로를 대신할 수 있고 나 이상으로 상대가 나를 대변해줄 것으로 믿는 동일화의 신뢰(identification based trust)로 발전한다. 세 번째 단계까지의 신뢰가 축적되면 개인은 그 공동체의 규범과, 기대 가치를 내면화하여 목표 달성을 보다 원활하게 이룰 수 있게 된다.

신뢰는 배경적 기대(background expectation)와 구성적 기대(constitutive expect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배경적 기대란 집합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표준화된 신호와 약호규칙에 의해 창조된 '일상생활의 태도'를 말한다. 이는 시각의 호혜성이며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인식하는 개인 또는 조직 이전에 수립된 사회적 사실들 또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해석틀을 사용하고 사건들을 동일한 전형적 방식으로 본다고 가정한다(박희봉, 2009: 191).

구성적 기대는 자기이해 관계로부터의 독립이며 대안적인 행위들의 집합이 개인 또는 조직의 욕망, 환경, 계획, 이해관계, 선택의 결과에 상관없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 혹은 사회 일각에서 신뢰가 충만하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능력이며 가치체계, 특히 사회적 신뢰를 주로 반영하고 있다(Fukuyama, 1995: 27-28).

## ②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측면인 규범준수는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 규범이어야 하며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규범은 구성원 간 책임의식을 증진하여 사회협력의 수준을 높이고(Field, 2003: 26), 내가 남에게 한 일이 향후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암묵적인 동기에서 생겨나는 행동규범(비공식적 규범과 공식적 법질서 준수를 포함)이다. 또한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이익을 도모하고자 국가의 법률이나 조직의 규칙 등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Putnam, 2000: 217).

또한 일반화된 네트워크에서 기회주의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개인들은 호혜성을 내재화하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규범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호혜성은 개인들과 집단 목적의 성취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제한된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제한된 호혜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은 주고 돌려받는 기제의 균형에 달려있다(박숙미, 2002: 53).

호혜성은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돌아오며 어찌면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개념으로써 원천적으로 불안정하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으로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또한 호혜성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집단에 속한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간측면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관계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상이 돌아오는 상황을 말한다. 즉, 당사자들만의 교환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모습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러한 호혜성은 신뢰와 관련된다. 즉, 일반적 신뢰 없

이는 일반화된 호혜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화된 교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여는 보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호혜성은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고 호혜성의 실패는 신뢰를 감소시킨다(한상미, 2007: 30).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측면인 규범준수는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규범이어야 하는 것이다.

## 2) 구조적 측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측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네트워크와 사회구조이다. 즉, 사회적 자본이 연결망을 포함한 사회조직의 형태와 연관된 것으로 네트워크나 사회구조와 같이 객관적이고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 (1) 네트워크

네트워크란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조직간 상호작용과 자원을 교환하는 사회적 체계이며 교환형태는 일반적 상호작용 형태의 맥락 내에서 무한하고 연속적인 거래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측면은 사회적 구조와 네트워크 관계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이나 집단간 '비인격적 연결배열(impersonal configuration of linkages)'를 의미한다. 또한 네트워크는 구조화되지 않은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연계(linkage), 교류(association) 또는 구조화된 조직이나 네트워크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organization of network)의 의미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자본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 밀도, 다양성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 논의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40).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계체계를 구축·유지하는 과정이다. 둘째, 네트워크의 원리는 상호의존성과 호혜성이 강조되며 행위자간의 관계의 맥락이 중요시 되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개별조직은 자신의 고유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가 강조된다(이동원, 2009: 117-119).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이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뢰구조가 이루어지는 미시적 기반을 밝혀준다. 이 신뢰구조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여하는 방식도 신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는 유형화할 수 있고 이는 특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되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Putnam, 2000: 21).

이러한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속성론적 접근방법이고 두 번째는 발생학적 접근방법이다. 속성론적 접근방법은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방법으로 네트워크의 속성에 따라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와 교량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결속형 네트워크가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 즉 학연, 혈연, 지연

등의 사회적 자본 형태라면 교량형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는 포용적 사회적 자본이다(Putnam, 2000: 22-24).

둘째, 네트워크에 대한 발생학적 접근방법으로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메커니즘이라고 바라보는 접근방법이다. 이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달리하여 발생적 측면에서 보면 맹아적 네트워크, 귀속적 네트워크, 성취적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문제는 집단의 폐쇄성 혹은 개방성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집단을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강한 연대의 존재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유리한지 혹은 집단을 외부로 연결하는 약한 연대의 존재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유리한지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결국 이 논쟁은 사회적 자본 축적에 유리한 네트워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기존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려면 강한 연대가 필요하고 기존 집단의 정체성 유지가 필요 없다면 약한 연대가 사회적 자본의 확대에 보다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이 폐쇄적이거나 개방적이냐의 정도에 따라서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의 교류에 집중하기 때문이다(홍현미라, 2005: 112).

## ② 사회구조

사회구조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측면의 핵심적 요소인 네트워크와 함께 사회협력과 관련이 있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이 사회구조는 문화적 요인과 사회갈등으로 구분한다(이동원·정갑영·박준·채승병·한준, 2009: 162). 문화적 요인은 사회의 협력과 화합에 영향을 주는 사회 저변에 깔린 문화적인 배경을 나

타난다. 일반적으로 수평적 사회관계가 발달한 문화일수록 사회협력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회갈등은 사회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제도적 특징인 소득불균형, 민주주의 지수, 정부역량 등을 이용해 사회갈등지수를<sup>10)</sup> 측정한다(이동원 외, 2009: 166). 여기에서의 소득불균형은 사회행복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갈등요인이다. 예를 들면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사회 일수록 사회분열이 가속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져 결국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감소된다. 또한 소득불균형 악화는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나 능력부족으로 해석되기 쉽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9).

한편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구조적 사회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계층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갈등관리 장치로서 민주주의와 정부 역량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사회갈등의 구조적 요인이 심한 지역에서도 의회, 선거, 정당 등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사회의 통합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갈등복합화<sup>11)</sup> 추세에 상응하여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심화시켜야

---

10)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 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나누는 방식” 으로 사회갈등 지수 산출, 즉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지수’의 산술 평균으로 나눠 산출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 효과성이 낮을수록 갈등지수는 높아진다. 소득 분배는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고, 민주주의와 정부 정책은 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소득분배 수준이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와 정부정책을 잘하면 사회갈등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빈곤해소의 차원이 아닌 수직적 사회이동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복지정책과 저소득층의 사회이동을 돕는 사회서비스를 균형있게 실행하여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다.

정부역량은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능력있는 정부는 평소 특정 이익집단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가 반대집단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면 정책의 정당성이 제고되며 능력있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쉽다.

정치적 권리는 사회가 구성원의 정치적 견해를 실천할 자유를 허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일수록 개인의 소유권이 잘 보호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공적신뢰가 형성되기 쉽다. 반면에 정치적 권리를 무시하는 국가일수록 개인의 소유권 보호가 약하고 민간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강한 편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20).

사회갈등과 불평등은 사회적 합의를 방해하고 이익집단 간 지대 추구 경쟁을 자극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비용을 초래한다.<sup>12)</sup> 예를 들면 오일쇼크 등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소득 불균형, 민족다양성 등)과 갈등관리제도<sup>13)</sup>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이동원, 2009: 26-29).<sup>14)</sup>

11) 이념·계층·지역·세대 등의 기본적 분열구조뿐 아니라 환경·복지·문화 등 탈물질주의적 가치까지 반영된 갈등들이 복합갈등으로 발전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18).

12)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나라의 갈등수준을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갈등수준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분석할 모형을 세울 수 있다. 한 국가의 전반적인 갈등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파업, 시위, 폭동, 내전 등 실제 발생한 물리적 갈등사건들을 일일이 집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정확한 갈등수준을 구하는 방법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4).

13) 갈등관리제도란 민주주의와 정부의 갈등조정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해 공공정책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심화시키고 정부 운영체제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해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민주주의 질적 심화의 토대가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양시켜야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 개념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증진의 형성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행하였다. 즉 거주지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로 표본 추출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도

---

규범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선거, 국회, 정당, 미디어 등 민주적 제도가 완비돼 있을 뿐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인, 언론인, 국민들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어야 한다.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이 심한 스위스는 소수파의 정부참여를 보장하는 '협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통합을 유지해 왔다. 또한 정부가 능숙한 갈등조정자로서 정책운용 시 공정성과 일관성 등을 발휘하면 민주주의 성숙도가 미흡해도 사회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4).

- 14) 1인당 GDP의 27%가 바로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사회갈등으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비용이다. 이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1인당 GDP는 27% 증가한다는 뜻으로, 사회갈등으로 인한 파국적 결과를 막으려면 당사자들이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함을 직각함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18-19).

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요원을 교육시켜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도구로는 사회적 자본의 4변수인 신뢰 6개 항목, 사회규범 8개 항목, 네트워크 8개 항목, 사회구조 8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 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설문지는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기존 연구, 특히 삼성경제연구소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만으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표 3> 참고).

첫째,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등 4개 변수를 각각 세부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가족, 친척의 신뢰정도, 지역사회 이웃, 친구의 신뢰정도,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기관의 신뢰정도, 금융기관, 기업에 대한 신뢰정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신뢰도 등 신뢰변수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셋째, 지역사회주민의 규범준수 여부,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의 규범준수 여부, 자치단체의 법규준수 여부,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인식,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청렴도 등 8개 항목이 사회규범 변수로 구성된다.

넷째, 네트워크 변수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정보공유 여부 및 정도,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여부,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의 소통정도,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정도, 주민과 지자체간의 의사소통 정도,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 및 활동 여부 등이다.

다섯째, 사회구조 변수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차별 여부, 지자체의 정책수행 능력, 지역사회의 사회갈등 정도, 지자체(공무원)의 전문성 등이다.

<표 3> 조사도구

| 구분        | 변수                  | 문항  |                                      |    |
|-----------|---------------------|---|--------------------------------------|----|
| 사회적<br>자본 | 신뢰                  | · 가족, 친척에 대한 신뢰정도                                     | 1                                    |    |
|           |                     | · 지역사회(이웃, 친구)에 대한 신뢰정도                               | 2                                    |    |
|           |                     | ·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경찰, 세무서, 감사기관 등)에 대한 신뢰정도           | 3                                    |    |
|           |                     | · 사회기관(종교, 언론 기관, 노조, 기업 등)에 대한 신뢰정도                  | 4                                    |    |
|           |                     | · 금융기관, 기업에 대한 신뢰정도                                   | 5                                    |    |
|           |                     | ·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대한 신뢰정도                                | 6                                    |    |
|           | 호혜성에<br>기반한<br>사회규범 |   | · 지역사회주민의 규범(법과 질서)준수 여부             | 7  |
|           |                     |   | · 자원봉사 및 자선사업에 대한 인식                 | 8  |
|           |                     |   | · 지역사회단체 간 상호협력정도                    | 9  |
|           |                     |   | · 지역내 갈등 및 문제 자체 해결 정도               | 10 |
|           |                     |   | · 지역내 공공부문의 청렴정도에 대한 인식              | 11 |
|           |                     |   | · 지역내 민간부문의 청렴정도에 대한 인식              | 12 |
|           |                     |   | · 지역 자치단체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인식            | 13 |
|           |                     |   | · 지역내 각종단체, 기관, 조직들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 | 14 |
| 네트<br>워크  |                     |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보공유 정도                                   | 15                                   |    |
|           |                     |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여부                                 | 16                                   |    |
|           |                     |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과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 정도                        | 18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 정도                                    | 19                                   |    |
|           |                     |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의 정보 제공 정도                               | 20                                   |    |
|           |                     | ·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의사소통 정도                                  | 21                                   |    |
|           |                     | · 6개 사회단체(종교, 교육·예술·문화, 스포츠·여가, 노조, 정당, 전문협회) 가입정도 측정 | 22                                   |    |

| 구분         |          | 변수                       | 문항 |
|------------|----------|--------------------------|----|
| 사회적<br>자본  | 사회<br>구조 | · 지역사회 차별정도에 대한 인식       | 23 |
|            |          | · 지역사회 갈등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정도  | 24 |
|            |          | · 지역사회 개인이나 집단의 편향, 독점여부 | 25 |
|            |          | · 지역사회의 소득불균형 정도에 대한 인식  | 26 |
|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 능력     | 27 |
|            |          |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전문성 보유 여부 | 28 |
|            |          | ·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자발적 의견제시 여부 | 29 |
|            |          | ·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도 | 30 |
| 응답자의<br>특성 |          | · 연령                     | 1  |
|            |          | · 성별                     | 2  |
|            |          | · 학력                     | 3  |
|            |          | · 거주지역                   | 4  |
|            |          | · 출신지역                   | 5  |
|            |          | · 직업                     | 6  |
|            |          | · 혼인상태                   | 7  |
|            |          | · 기부/종교이외 기부액            | 8  |

## 1) 타당도 검사

### (1) 척도구성안 검토

#### ①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과 척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최종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였다. 이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극단적 점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통계치의 분석결과, 평균은 2.9에서 3.4까지 그리고 표준편차도 극단적인 점수가 없어 도구개발을 위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② 문항-척도 상관관계 확인

종종 문항 선택의 결정에서 근거로 사용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문항과 척도 간의 상관관계이며, 대개 문항-척도 상관계수가 0.3일 때, 문항-전체척도 상관관계 0.2이상일 때 대체적으로 타

당하다고 본다(우수명, 2007: 54). 따라서 각 문항과 그것이 속한 하위척도간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척도문항을 검토할 수 있다. 각 문항과 하위영역별 상관계수는 세 영역 모두 하위 척도-문항간의 상관계수는 0.3이상이며 전체척도-문항간의 상관계수는 0.2 이상으로 문항 모두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 (2)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들에 대한 점수들의 분산을 적은 개수의 차원 또는 요인의 형태로 표현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사회적 자본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요인 모델 추출모델 중 공통요인분석 방법(common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공통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문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요인부하량 또는 적재량(factor loading)을 기준으로 한다. 대개 요인부하량이 0.3이상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0.4이상은 중요하게 의미있는 것으로 0.5이상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배일섭·정영숙, 1999).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카이제방식인 요인간 상관행렬의 고유치(eigen value) 1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요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통분(communality)이 0.40 이상인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요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하위구조를 파악하였다.

## 2) 신뢰도 검사

사회적 자본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활용하였다. 신뢰 6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0.787이었으며, 사회 규범의 8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0.815였으며 네트워크는 0.839, 사회

구조는 0.753의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이 연구의 측정변수 모두 신뢰성 계수가 0.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든 변수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의 변수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각 변수들이 이 연구에서 반복해서 측정하여도 신뢰할 만한 변수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표 4> 사회적 자본의 신뢰도 측정

| 변수        |                  | 측정문항수 |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 |
|-----------|------------------|-------|-----------------------------|
| 사회적<br>자본 | 신뢰               | 6     | .787                        |
|           | 호혜성에 기반한<br>사회규범 | 8     | .815                        |
|           | 네트워크             | 8     | .839                        |
|           | 사회구조             | 8     | .753                        |

### 3. 연구방법

설문조사의 분석방법은 첫째, 변수들의 각 항목별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여 0.5 이상일 경우 신뢰도를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자본 4개 변수인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간 상관관계분석을 하여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고 상관관계 정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t검정과 분산분석을 하였다. 성별, 거주지별, 출신지별, 기부경험의 유무에 따라 변수간의 평균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변수간의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응답자 개인 특성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검정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제기한 ‘응답자 특성(성별, 출신지, 거주지,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성별, 출신지, 거주지에 따라 신뢰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부경험에 따른 다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부경험에 따라 신뢰의 차이가 있으며 기부경험 외 변수는 신뢰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나타났다. 즉, 기부 경험의 여부에 따라 신뢰의 차이가 나지만 성별, 출신지, 거주지에 따라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신뢰의 차이검정(I)

| 구분   |      | 평균    | 표준오차    | t값     | 유의확률     |
|------|------|-------|---------|--------|----------|
| 성별   | 남자   | 3.341 | 0.02425 | -0.809 | 0.419    |
|      | 여자   | 3.368 | 0.02365 |        |          |
| 출신지  | 도내   | 3.360 | 0.01759 | 0.852  | 0.394    |
|      | 도외   | 3.315 | 0.0580  |        |          |
| 거주지  | 제주시  | 3.366 | 0.02391 | 3.465  | 0.478    |
|      | 서귀포시 | 3.338 | 0.02315 |        |          |
| 기부경험 | 있다   | 3.426 | 0.02346 | 3.465  | 0.001*** |
|      | 없다   | 3.307 | 0.02315 |        |          |

주 : \*\*\*  $p < 0.001$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제기한 ‘응답자 특성(성별, 출신지, 거주지,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출신지, 기부경험에 따른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주지에 따른 다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거주지에 따라 사회규범의 차이가 있으며 거주지 외 변수는 별다른 사회규범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에 따라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의 차이가 나지만 성별, 출신지, 기부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응답자 특성에 따른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의 차이검정(I)

| 구분   |      | 평균    | 표준오차    | t값     | 유의확률   |
|------|------|-------|---------|--------|--------|
| 성별   | 남자   | 3.101 | 0.02364 | 1.198  | 0.478  |
|      | 여자   | 3.125 | 0.2315  |        |        |
| 출신지  | 도내   | 3.120 | 0.2043  | 1.198  | 0.231  |
|      | 도외   | 3.058 | 0.2847  |        |        |
| 거주지  | 제주시  | 3.088 | 0.02043 | -2.142 | 0.032* |
|      | 서귀포시 | 3.162 | 0.02847 |        |        |
| 기부경험 | 있다   | 3.152 | 0.2538  | 1.930  | 0.054  |
|      | 없다   | 3.087 | 0.02173 |        |        |

주 : \*  $p < 0.05$

그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제기한 ‘응답자 특성(성별, 출신지, 거주지,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출신지, 거주지에 따라 네트워크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기부경험에 따른 다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거주지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주지 외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에 따라 네트워크의 차이가 나지만 성별, 출신지, 기부경험에 대해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응답자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의 차이검정(I)

| 구분   |      | 평균    | 표준오차    | t값     | 유의확률   |
|------|------|-------|---------|--------|--------|
| 성별   | 남자   | 2.934 | 0.02525 | 0.284  | 0.777  |
|      | 여자   | 2.924 | 0.02541 |        |        |
| 출신지  | 도내   | 2.920 | 0.02173 | -1.396 | 0.163  |
|      | 도외   | 2.998 | 0.03155 |        |        |
| 거주지  | 제주지  | 2.899 | 0.2173  | -2.309 | 0.021* |
|      | 서귀포시 | 2.985 | 0.03155 |        |        |
| 기부경험 | 있다   | 2.969 | 0.02759 | 1.828  | 0.068  |
|      | 없다   | 2.902 | 0.02346 |        |        |

주 : \*  $p < 0.05$

이어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제기한 ‘응답자 특성(성별, 출신지, 거주지,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사회구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출신지, 거주지에 따른 사회구조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부경험에 따른 다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구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부경험여부 외에 다른 사회구조의 별 다른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기부경험여부에 따라 사회구조의 차이가 나지만 성별, 출신지, 거주지에 대해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사회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회구조의 차이검정(I)

| 구분   |      | 평균    | 표준오차    | t값     | 유의확률    |
|------|------|-------|---------|--------|---------|
| 성별   | 남자   | 2.967 | 0.02328 | 1.413  | 0.158   |
|      | 여자   | 2.922 | 0.02207 |        |         |
| 출신지  | 도내   | 2.940 | 0.01735 | -0.812 | 0.417   |
|      | 도외   | 2.981 | 0.04086 |        |         |
| 거주지  | 제주시  | 2.943 | 0.01928 | -0.016 | 0.952   |
|      | 서귀포시 | 2.945 | 0.02900 |        |         |
| 기부경험 | 있다   | 3.002 | 0.02308 | 2.940  | 0.003** |
|      | 없다   | 2.906 | 0.02179 |        |         |

주 : \*\* p < 0.005

아울러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제기한 ‘응답자 특성(성별, 출신지, 거주지,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출신지, 거주지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부경험에 따른 다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부경험 외 변수에 따른 차이는 없는 나타났다. 즉, 기부 경험의 여부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나지만 성별, 출신지, 거주지에 대해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검정(I)

| 구분    |      | 평균    | 표준오차    | t값    | 유의확률    |
|-------|------|-------|---------|-------|---------|
| 성별    | 남자   | 3.069 | 0.01956 | 0.113 | 0.910   |
|       | 여자   | 3.066 | 0.01857 |       |         |
| 출신지   | 도내   | 3.067 | 0.01439 | 1.340 | 0.181   |
|       | 도외   | 3.073 | 0.03882 |       |         |
| 거주지   | 제주시  | 3.054 | 0.01651 | 1.340 | 0.181   |
|       | 서귀포시 | 3.092 | 0.02356 |       |         |
| 기부 경험 | 있다   | 3.118 | 0.01970 | 3.086 | 0.002** |
|       | 없다   | 3.033 | 0.01814 |       |         |

주 : \*\* p < 0.005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제기한 ‘응답자 특성(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에 따라 사회적 자본(신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 직업, 혼인상태에 따라 신뢰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령에 따라 신뢰의 차이가 있으며 연령 외 모든 변수에 따른 신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라 신뢰의 차이가 있지만 학력, 직업,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는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제기한 ‘응답자 특성(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에 따라 사회적 자본(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에 따라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에 따른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의

<표 9>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신뢰의 차이검정(II)

|      | 집 단  | 제공합     | 자유도 | 평균제공 | F     | 유의확률  |
|------|------|---------|-----|------|-------|-------|
| 연령   | 집단 간 | 2.836   | 4   | .709 | 2.485 | .042* |
|      | 집단 내 | 283.855 | 995 | .285 |       |       |
|      | 합계   | 286.691 | 999 |      |       |       |
| 학력   | 집단 간 | 2.185   | 5   | .437 | 1.526 | .179  |
|      | 집단 내 | 284.506 | 994 | .286 |       |       |
|      | 합계   | 286.691 | 999 |      |       |       |
| 직업   | 집단 간 | 2.515   | 8   | .314 | 1.096 | .363  |
|      | 집단 내 | 284.176 | 991 | .287 |       |       |
|      | 합계   | 286.691 | 999 |      |       |       |
| 혼인상태 | 집단 간 | 1.014   | 4   | .254 | .883  | .473  |
|      | 집단 내 | 285.676 | 995 | .287 |       |       |
|      | 합계   | 286.691 | 999 |      |       |       |

주 : \*  $p < 0.05$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 모두 유사한 형태의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의 차이검정(II)

|    | 집 단  | 제공합     | 자유도 | 평균제공 | F     | 유의확률 |
|----|------|---------|-----|------|-------|------|
| 연령 | 집단 간 | .869    | 4   | .217 | .793  | .530 |
|    | 집단 내 | 272.562 | 995 | .274 |       |      |
|    | 합계   | 273.431 | 999 |      |       |      |
| 학력 | 집단 간 | 2.878   | 5   | .576 | 2.115 | .061 |
|    | 집단 내 | 270.553 | 994 | .272 |       |      |
|    | 합계   | 273.431 | 999 |      |       |      |
| 직업 | 집단 간 | 3.144   | 8   | .393 | 1.441 | .175 |
|    | 집단 내 | 270.287 | 991 | .273 |       |      |

|      |      |         |     |      |       |      |
|------|------|---------|-----|------|-------|------|
|      | 합계   | 273.431 | 999 |      |       |      |
| 혼인상태 | 집단 간 | 1.340   | 4   | .335 | 1.225 | .298 |
|      | 집단 내 | 272.091 | 995 | .273 |       |      |
|      | 합계   | 273.431 | 999 |      |       |      |

계속하여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제기한 ‘응답자 특성(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에 따라 사회적 자본(네트워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학력에 따른 다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혼인상태에 따른 네트워크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령과 학력에 따라 네트워크의 차이가 나며 직업,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의 차이검정(II)

|      | 집 단  | 제공합     | 자유도 | 평균제공  | F     | 유의확률    |
|------|------|---------|-----|-------|-------|---------|
| 연령   | 집단 간 | 3.229   | 4   | .807  | 2.533 | .039*   |
|      | 집단 내 | 317.040 | 995 | .319  |       |         |
|      | 합계   | 320.269 | 999 |       |       |         |
| 학력   | 집단 간 | 6.629   | 5   | 1.326 | 4.202 | .001*** |
|      | 집단 내 | 313.640 | 994 | .316  |       |         |
|      | 합계   | 320.269 | 999 |       |       |         |
| 직업   | 집단 간 | 4.681   | 8   | .585  | 1.837 | .067    |
|      | 집단 내 | 315.588 | 991 | .318  |       |         |
|      | 합계   | 320.269 | 999 |       |       |         |
| 혼인상태 | 집단 간 | 1.614   | 4   | .404  | 1.260 | .284    |
|      | 집단 내 | 318.655 | 995 | .320  |       |         |
|      | 합계   | 320.269 | 999 |       |       |         |

주 : \* p < 0.05 \*\*\* p < 0.001

이어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제기한 ‘응답자 특성(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에 따라 사회적 자본(사회구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직업, 혼인상태에 따라 사회구조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에 따른 다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력에 따라 사회구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 외 변수에 따른 사회구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에 따라 사회구조의 차이가 나지만 연령, 직업,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사회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구조의 차이검정(II)

| 집 단  |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유의확률   |
|------|------|---------|-----|------|-------|--------|
| 연령   | 집단 간 | .962    | 4   | .241 | .933  | .444   |
|      | 집단 내 | 256.549 | 995 | .258 |       |        |
|      | 합계   | 257.512 | 999 |      |       |        |
| 학력   | 집단 간 | 4.009   | 5   | .802 | 3.144 | .008** |
|      | 집단 내 | 253.503 | 994 | .255 |       |        |
|      | 합계   | 257.512 | 999 |      |       |        |
| 직업   | 집단 간 | 3.164   | 8   | .395 | 1.541 | .139   |
|      | 집단 내 | 254.348 | 991 | .257 |       |        |
|      | 합계   | 257.512 | 999 |      |       |        |
| 혼인상태 | 집단 간 | .386    | 4   | .096 | .373  | .828   |
|      | 집단 내 | 257.126 | 995 | .258 |       |        |
|      | 합계   | 257.512 | 999 |      |       |        |

주 : \*\* p < 0.005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제기한 ‘응답자 특성(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직업, 혼인상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학력에 따른 다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력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나지만 연령, 직업,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검정(II)

| 집 단    |       | 제 곱 합   | 자 유 도 | 평 균 제 곱 | F     | 유 의 확 률 |
|--------|-------|---------|-------|---------|-------|---------|
| 연 령    | 집 단 간 | 0.759   | 4     | 0.190   | 1.043 | 0.384   |
|        | 집 단 내 | 180.941 | 995   | 0.182   |       |         |
|        | 합 계   | 181.700 | 999   |         |       |         |
| 학 력    | 집 단 간 | 2.724   | 5     | 0.545   | 3.026 | 0.010*  |
|        | 집 단 내 | 178.975 | 994   | 0.180   |       |         |
|        | 합 계   | 181.700 | 999   |         |       |         |
| 직 업    | 집 단 간 | 1.950   | 8     | 0.244   | 1.344 | 0.218   |
|        | 집 단 내 | 179.750 | 991   | 0.181   |       |         |
|        | 합 계   | 181.700 | 999   |         |       |         |
| 혼 인 상태 | 집 단 간 | .934    | 4     | 0.233   | 1.285 | 0.274   |
|        | 집 단 내 | 180.766 | 995   | 0.182   |       |         |
|        | 합 계   | 181.700 | 999   |         |       |         |

주 : \* p < 0.05

##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간 상관관계 분석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즉, 신뢰,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신뢰와 호혜성에 사회규범간의 상관계수는 0.460, 신뢰와 네

트위크간의 상관계수는 0.348, 신뢰와 사회구조간의 상관계수는 0.327로 나타났다.

호혜성에 기반 사회규범과 네트워크간의 상관계수 0.615,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과 사회구조간의 상관계수는 0.579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와 사회구조간의 상관계수는 0.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pm 0.9$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pm 0.7 \sim 0.9$  미만이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pm 0.4 \sim 0.7$  미만일 때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pm 0.2 \sim 0.4$  미만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우수명, 2007: 288). 따라서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과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사회구조, 신뢰와 사회규범, 사회적 규범과 사회구조 간에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뢰와 네트워크, 신뢰와 사회구조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 구분                    |      | 사회적 자본  |         |         |         |
|-----------------------|------|---------|---------|---------|---------|
|                       |      | 신뢰      | 사회규범    | 네트워크    | 사회구조    |
| 사<br>회<br>적<br>자<br>본 | 신뢰   | 1       | .460*** | .348*** | .327*** |
|                       | 사회규범 | .460*** | 1       | .615*** | .579*** |
|                       | 네트워크 | .348*** | .615*** | 1       | .673*** |
|                       | 사회구조 | .327*** | .579*** | .673*** | 1       |

주 : \*\*\*  $p < 0.001$

이에서 보면 사회규범과 네트워크, 네트워크간에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 요소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추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뢰와 사회규범,

사회적 규범과 사회구조 간에도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보아진다.

## V. 결론

### 1. 요약 및 시사점

#### 1)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일반적 분석

이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지만 근소한 차이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성별의 경우는 남자가 많았다. 그리고 학력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역의 경우 제주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의 경우는 도내가 가장 많고 서울경인지역, 호남지역, 경남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미취업이 가장 많았고 혼인상태는 기혼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부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기부경험이 없다'가 가장 많았다.

둘째, 사회적 자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규범, 사회구조,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 출신지, 거주지에 따라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는 평균 차이가 없으나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축적과 기부문화의 확산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지며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기부문화 확산에 사회적 노력과 정책적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성별, 출신지, 기부경험에 따라 네트워크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주지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도 거주응답자가 서귀포시 응답자의 네트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양 지역의 개발 불균형, 삶의 질 격차에서 기인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학력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지역 간, 세대간, 계층 간 갈등 및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제도교육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도민 교육의 질적 향상과 격차 해소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령, 학력에 따라 네트워크의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제활동인구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학력능력 향상과 도민일자리 특히 실버세대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시급히 도모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 형성과 기부문화의 확산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지며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기부문화 확산에 사회적 노력과 정책적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간 상관관계 분석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즉, 신뢰,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신뢰와 호혜성에 사회규범간의 상관계수는 0.460, 신뢰와 네트워크간의 상관계수는 0.348, 신뢰와 사회구조간의 상관계수는 0.327로 나타났다.

호혜성에 기반 사회규범과 네트워크간의 상관계수 0.615,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과 사회구조간의 상관계수는 0.579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와 사회구조간의 상관계수는 0.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pm 0.9$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pm 0.7 \sim 0.9$  미만이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pm 0.4 \sim 0.7$  미만일 때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pm 0.2 \sim 0.4$  미만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우수명, 2007: 288). 따라서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과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사회구조, 신뢰와 사회규범, 사회적 규범과 사회구조 간에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뢰와 네트워크, 신뢰와 사회구조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서 보면 사회규범과 네트워크, 네트워크간에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 요소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추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뢰와 사회규범, 사회적 규범과 사회구조 간에도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보아진다.

## 2. 시사점 : 사회적 자본의 확충방안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자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회규범, 사회구조,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가 공동체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대인적 관계를 의미하고 존경과 우의 등을 기반으로 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사회관계속에 존재하며 서로 신뢰하기에 협력을 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전형적인 요소이다. 또한 조직의 신뢰를 통해서 업무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 간의 협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한다.

또한 법질서를 준수할 인센티브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켜야 한다. 즉, 교통법규와 공공질서 등 모든 영역에서 '법을 지키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계약이 보호되면 사회의 신뢰가 제고되어 진다.

둘째, 조사결과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기부문화 확산에 사회적 노력과 정책적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시 거주 응답자가 서귀포시 응답자의 네트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양 지역의 개발 불균형, 삶의 질 격차에서 기인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셋째, 학력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지역 간, 세대간, 계층 간 갈등 및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제도교육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도민 교육의 질적 향상과 격차 해소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연령, 학력에 따라 네트워크의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인구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학력능력 향상과 도민일자리 특히 실버세대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시급히 도모해야 하겠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는 상호간의 연계형태이며 누가 누구에게 접근하는가 하는 상호간의 관계구조를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의 여러 가지 특징 중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 간이나 조직상호 간의 연결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규범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열린 네트워크를 향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즉, 지역, 이해집단 간에 단절된 네트워크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참여활동을 지역 간 교류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도 합리적 방법이다. 특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농가소득의 향상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에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합리적 소통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테면 공익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 기구의 권위를 활용하여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을 촉진하는 방안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환경분쟁, 노사분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중립적인 중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공공사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반대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이해관계자가 없도록 공청회를 관련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내실 있는 장치가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복지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제주사회가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역량이나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각 주체들 간 복지거버넌스 구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제주지역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어렵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교육단체, 사회·문화·시민 단체, 기업체,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언론매체들 간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나 복지거버넌스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소통의 장(field)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구혜정, 2003,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숙미, 2002, 신뢰구조의 동학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세경 외, 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연구보고서 2008-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희봉, 2009, 사회자본, 조명문화사.
- 배일섭·정영숙, 1999, SPSS 한글프로그램과 통계분석기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 이상도, 2009,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자본이 문제해결능력과 네트워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수명, 2007, 마우스로 잡는 SPSS, 인간과 복지.
-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7, 사회적 자본 : 이론과 쟁점, 그린.
- 이동원, 2009,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CEO Information 제722호,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정갑영·박준·채승병·한준, 2009,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 가?, 삼성경제연구소.
- 최영출, 2006,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커버넌스, 대영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사회자본과 민간복지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 한상미, 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 자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영란, 2005,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 홍현미라, 2006, 미국의 지역사회자본 구축정책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25, 107-132.
- Bourdieu, P., 1996,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s. ed. by J. G. Richardson, Greenwood Press.
- Field, John, 2003, Social capital.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Fukuyama, Fransis, 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The Free Press; 구승희 역, 1999,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Grootaert, C. & Bastelare, T. 2002,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An empirical 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Gunnar Lind Haase Svendsen & Gert Tinggaard Svendsen, 2004,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Social Capital*, Edward Elegg.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Community*, Touchstone Books; 정승현 역, 2009, *나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Abstract

## A Study on Social Capital in Jeju

Jin, Gwan-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ocial capital in Jeju. The reason is that social capital is created through relationship and shared by related people, which makes them cooperative and cohesive. For this purpose research questions are ; first is to analyze of social capital in Jeju and the second is to develop the scale of social capital in Jeju.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is consist of trust, reciprocity, network and social structure. The social capital scale in Jeju in this study was developed through deductive process such as exploring literature on social capital and inductive process.

The scale development process was 1) item development 2) pilot study 3) study. Data for analysis was collected from 1,000 peoples in Jeju. The scale of 30 items was constructed with 4 dimensions with high reliability coefficient.

The first dimension is 'trust' with 6 items; the second dimension is 'reciprocity' with 8 items; the third dimension is 'network' with 8 items; the last dimension is 'social structure' with 8 items. All analyze revealed the construct validity, criterion-related validity and the discriminant validity. Thus the social capital scale for Jeju developed this study was proved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analysis of social capital in Jeju constitutes of 1) the relationship

---

\* Senior Researcher, Jeju Technopark

among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2) the types of social capital, 3) analysis of effect factors to social capital in Jeju.

It is found that all component of structural aspects and cognitive aspects are positively correlated, bonding network and bridging network. It is the linkage network that correlated with both trust and reciprocity in cognitive aspects. In other words, when people in Jeju participate in linkage networks, the probability of interact with trust and reciprocity is increased. Therefore we can say that people in Jeju linkage networks are very important social capital in bal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theories about trust, reciprocity, network, social structure and provides new ways of understanding and strengthening of social capital in Jeju.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for Jeju community by encouraging people in Jeju to cooperate and solidify to solve problem in Jeju and cope collective to the change Jeju community.

Key Words : Social Capital, Trust, Generalized Reciprocity, Network, Social Structure

논문투고일 2010. 12. 30.

심사완료일 2011. 1. 23.

게재확정일 2011. 2. 3.